

내일부터 화순읍 일부 구간 '한쪽 주차제' 시행

화순군, 금호아파트 후문 도로 200m 구간 평일 오전 8시~오후 9시 주·정차 60분 허용

화순군은 오는 6월 1일부터 금호아파트 후문(장일오토랜드-만연공영주차장 앞) 쪽 도로에 한쪽 주차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쪽 주차제는 무분별한 양쪽 주차로 인한 차량 정체와 보행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도로 양쪽에 각각 다른 단속유예 시간을 적용하고 도로 한쪽

으로만 주차를 유도하는 제도다.

시행 구간은 장일오토랜드에서 만연공영주차장 앞까지 200m 구간이다. 한쪽 주차제가 시행되면 금호아파트와 접한 도로는 60분간 주·정차 단속을 유예하고, 맞은편 상가 쪽 도로는 주차가 금지되며 5분간만 주·정차 단속이 유예된다.

운영 시간은 교통이 혼잡한 출·퇴근 시간을 포함하는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평일 점심시간(11:40~13:20)과 주말, 공휴일에는 양쪽 주차를 허용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해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화순군은 홍보와 의견수렴을 위해 지난 4월부터 해당 구간에서 한쪽 주차제를 시범 운영하고 있고 31일이면 계도기간이 끝난다.

다음달 1일부터는 한쪽 주차제가 시행되는 도로에서 주·정차 시간을 위반하면 과태료 4만 원이 부과된다.



화순군 관계자는 "양쪽 주차로 혼잡한 구간에 원활한 교통과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행하는 한쪽 주차제에 많은 군민이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화순=박순철 기자

나주시, 갈등조정가 양성교육 참가 모집

나주시공익활동지원센터(이하 센터)는 건강한 지역 공동체를 위한 '갈등조정가 양성교육' 참가자를 이달 31일부터 6월 4일까지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김홍석 조울 컬렉티브 대표 및 전문강사를 초청, 6월 10일부터 7월 16일까지 매주 목·금요일 오후 6시 30분부터 3시간 동안 센터 대회의실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갈등의 이해, 서클 프로세스, 감정 훈련, 회복적 대화 등 갈등 조정과 관련된 이론과 실습 과정으로 총 12회차 진행된다. 입문·기초과정을 수료한 참가자는 추후 심화과정 참여 기회가 주어진다.

모집 인원은 총 25명으로 지역 공동체 활동가, 갈등 조정과 소통 역량 강화에 관심이 있는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소영 나주시공익활동지원센터장은 "지역 내 크고 작은 갈등을 지혜롭게 조정하는 역량을 키우는데 중점을 두고 지역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가겠다"며 시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교육과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나주시공익활동지원센터 공동체 지원팀(☎061-337-9921)으로 하면 된다.

기동취재본부



구례군, 봉성산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 숲 군락지 정비·바람길 조성사업 추진

구례군은 군민들이 가장 많이 찾는 봉성산 일원 50ha에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군은 봉성산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 사업으로 가지치기와 하층식생 관리, 대나무숲과 동백군락지 정비, 산수유와 동백나무 다층림 조성, 돌레길 주변정리 등을 실시했다.

봉성산과 연결되는 신월리 국도 주변 숲에는 바람길을 만들어 숲 내부의 낮은 기온과 높은 습도의 효과로 미세먼지를 잡아 나무 아래로 떨어뜨리는 미세먼지 저감기능을 극대화했다.

구례읍 중앙에 위치한 봉성산은 벚꽃 군락지와 동백숲, 돌레길 등이 조성되어 있어 군민들이 건강 관리와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많이 찾고 있는 곳이다.

선진강에서 유입되는 바람이 지나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어 구례도시권

주민들에게 맑은 공기를 제공해 주는 허파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도시공원이다.

구례읍에 거주하는 주민 윤모씨(65세, 남)는 "구례에 살면서 평생 봉성산을 다녔지만 구석구석 버려지는 곳 없이 전체적으로 숲에 대해 정비가 이루어진 것은 반가운 일이다"며 "미세먼지 저감기능 뿐만 아니라 예전보다 산행하기 쾌적해진 것을 보니 효과가 큰 것 같고, 앞으로 꾸준한 관리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봉성산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으로 도심에 깨끗한 공기를 공급하고, 열섬현상 완화 등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구례 10만 그루 심기운동 전개와 도시숲 조성 등 다양한 방법으로 청정구례를 만드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구례=박진호 기자

장성군, 319억원 투입해 하천 재해복구 '신속 마무리'

우기(雨期) 이전 6월까지 매듭... 유두석 군수 "재해 걱정 없는 장성 만들 것"

장성군이 우기(雨期) 이전에 하천 재해복구를 마무리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해, 30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장성군은 신속하게 하천 분야 복구계획을 수립해 총 사업비 319억원을 확보했다. 이후 실시설계 등을 거쳐 올해 3월부터 본격적으로 복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재해복구 대상지는 총 80개소로 지

방하천 20개소, 소하천 60개소다.

이 가운데 대규모 정비사업에 해당되는 장성읍 오동, 진원면 관안, 삼계면 화산, 황룡면 와룡소하천은 실시설계와 주민 보상 등 관련 절차 진행을 앞당겨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할 방침이다.

대규모 사업을 제외한 76건은 오는 6월까지 복구를 마친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장마철 이전에

재해복구사업을 매듭지어, 재해 걱정 없는 안전한 옐로우시티 장성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장성군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남면 삼태리 나노일반산업단지과 동화면 남평리 동화전자종합농공단지, 삼계면 부성리 삼계농공단지 복구에 5억원을 투입, 사면 복구와 도로변 배수시설 설치 등을 완료했다.

기동취재본부

담양군, 울진군과 우호교류 협약 체결

농업·문화·예술·관광 등 각종 교류협력 적극 추진키로

2021. 5. 26.(수) 전남도청 서재필실

원측부터 이철우 경북지사, 전찬걸 울진군수, 최형식 담양군수, 김영록 전남지사

담양군과 경북 울진군이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하고 상생발전을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 담양군은 지난 26일 전남도청 서재필실에서 전남 담양군·경북 울진군 간 우호교류 협약식이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번 담양군·울진군 간 우호교류 협약 체결은 전남·경북 상생협력회의 부대 행사로 개최되어 동·서간 화합과 교류의 기대감을 더욱 높이는 역할을 했다.

특히 두 지자체는 각각 산림, 바다 등 전체의 자연환경과 관광자원을 지녔다는 공통점을 지녀 경제·문화·관광 등 다양한 교류 영역에서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여건 성숙 시 자매결연 협약 체결까지 검토할 예정이다.

최형식 군수는 이날 협약식에서 "동·서 협력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서 전남과 경북이 더욱 긴밀히 공조해 고령화 문제 등 심각한 위기를 함께 극복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담양=박종영 기자

나주 봉황면, 진입 관문 가로화단 조성 구슬땀

나주시 봉황면 소재지 진입관문에 아름다운 소공원이 조성됐다.

나주시 봉황면은 최근 주민자치위원회를 비롯한 기관·사회단체, 주민 30여명과 함께 '민·관이 함께하는 꽃길조성' 사업을 펼쳤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참여자들은 면 소재지 나들목인 봉황RPC 앞 부지에 잔디, 철쭉 등을 식재하고 벤치, 야자매트를 설치해 150평 규모의 특색 있는 소공원 가로화단을 조성했다.

김명숙 주민자치위원장은 "쾌적하고 아름다운 공원 조성을 통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사회에 활력이 더해질 것"이라고 소감을 말했다. 기동취재본부

“ 땅에서 나는 음식 중에 토란보다 맛있는 것은 없다 ”

허균 <도문대작>

곡성군 농정과 유통양정팀 061) 360 - 7183 곡성토란 GOKSEONG TARO